

아파트 매매가 폭염에 상승폭 축소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서울·경기 늘고 지방 26주째 하락세 지속

지난 주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는 본격적인 휴가철과 여름 휴서기로 상승폭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지난 1일 기준 전국 주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다고 4일 밝혔다.

매매가격의 경우 수도권은 중소형 규모 중심으로 실수요가 이어졌고 재건축 예정 단지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과 경기의 상승폭은 늘었으나 인천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강남(0.12%)의 경우 송파구는 인접 신도시로의 수요 이탈로 상승폭이 축소된 반면 강동구는 재건축 대표단지인 둔촌주공이 무상지분율 합의 이후 상승폭이 확대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상승세를 주도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지방은 공급물량 적체와 미분양 증가 등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로 28주 연속 하락세가 지속됐다. 신규 공급 물량이 많은 대구·충북과 지역 기반보인인 조

신 철강 등의 침체로 거제·울산, 포항 등에서 하락세를 이어가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시도별로는 부산(0.11%), 서울(0.10%), 강원(0.05%), 인천(0.04%), 경기(0.04%) 등은 상승했다. 세종(0.00%), 제주(0.00%)는 보합, 경북(-0.18%), 충북(-0.11%), 대구(-0.09%) 등은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85㎡초과~102㎡이하(0.05%), 135㎡초과(0.04%), 102㎡초과~135㎡이하(0.02%), 60㎡이하(0.01%), 60㎡초과~85㎡이하(0.01%)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연령별로는 20년 초과(0.03%), 15년 초과~20년 이하(0.01%), 5년 초과~10년 이하(0.01%)는 상승했다. 5년 이하(0%)는 보합, 10년 초과~15년 이하(0.01%)는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문의가 줄어들었다. 서울 동남권과 충남 대구 등 일부 지역은 인근 신규 입주 아파트의 전세 공급으로 물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0.05%) 중 경기도는 높은 전

세가격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으로 서울 인구가 유입되며 지난주 대비 상승폭 확대됐다. 하지만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축소(0.01%포인트)됐다.

지방의 경우 전북은 주택가격 하락 우려로 인한 전세 유지 수요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대구와 충남은 하락폭을 이어갔고 충북과 경남은 하락 전환되며 전체적으로는 보합으로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세종(0.17%), 부산(0.10%), 인천(0.07%), 경기(0.06%), 서울(0.03%) 등은 상승했고 제주(0.00%)는 보합, 대구(-0.10%), 경북(-0.07%), 광주(-0.04%) 등은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135㎡ 초과(0.03%), 60㎡ 초과~85㎡ 이하(0.03%), 60㎡ 이하(0.02%), 85㎡ 초과~102㎡ 이하(0.02%), 102㎡ 초과~135㎡ 이하(0.01%) 순으로 나타났다.

건축연령별로는 10년 초과~15년 이하(0.03%), 15년 초과~20년 이하(0.03%), 20년 초과(0.02%), 5년 이하(0.01%), 5년 초과~10년 이하(0.01%) 순이다. /뉴시스



“오늘은 내가 레고시티의 주인공” 레고코리아(주) 크리스텐센 대표가 레고의 전통적인 인기 시리즈 레고시티를 체험으로 만나보는 레고시티 트레일러 이동식 체험존을 운영한다.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 신청 접수

전북지방중기청 내달 9일까지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중국 인증 집중지원 사업을 오는 9월9일 까지 접수한다.

전기전자 분야 CCC(강제인증), CCC(자율인증) 및 화장품 의료기기, 식품 등 CFDA 인증획득에 필요한 기술컨설팅, 시험검사, 등록 대행을 일괄 지원 한다.

또한 환경·노무·조세·안전 등 기업운영에 필수적인 분야별 법규 및

기업 문의에 대한 경영 애로지원도 제공한다.

지난해 수출액 5,000만불 미만인 기업이 지원할 수 있으며, 이번에는 지난 3월에 이어 2차로 신청을 받는다.

중국인증집중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통해 신청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063-210-6482)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조제분유’ 이력관리 단계적 의무화

올12월 1일부터

오는 12월1일부터 조제분유와 조제유류 등 영유아가 주로 섭취하는 조제유류의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제분유 등에 축산물의 원산지 및 원재료, 생산자 이름 제조일자 유통기한, 출하를 비롯한 유통과정 등의 식품정보를 소비자까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가공품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마련 ▲폐업신고 간소화 ▲부적합 보고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신설 ▲축산물가공업체의 안전관리인증(HACCP) 방식 개선 등이다.

축산물가공품 이력추적관리제도는 조제유류 가공업체의 매출과 판매업체의 면적별로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된다.

가공업체의 경우 매출액을 기준으로 ▲50억 이상 올해 12월1일 ▲10억 이상~50억 미만 2017년 6월1일 ▲1억 이상~10억 미만, 2017년 12월 1일 ▲1억 미만 및 2018년 이후 영업자, 2017년 6월1일 부터다.

판매업체의 경우 영업장 면적을 기준으로 ▲1000㎡ 이상, 2017년 6월 1일 ▲500㎡ 이상~1000㎡ 미만, 2017년 12월1일 ▲300㎡~500㎡ 미만 및 2018년 이후 영업신고자, 2018년 6월1일 부터다.

등록 관련 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과 미신고 미표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폐업신고도 간소화 된다. 그동안은 폐업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관청과 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기관 중 한 곳만 방문해 영업 폐업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게된다.

또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축산물 가공업체가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 축산물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뉴시스

리우올림픽 특수 “기대하기 어렵다”

직장인 출근시간에 경기시작으로 대체로 매출 상승 어려워

리우올림픽이 이를 앞으로 다가 왔지만 예년처럼 유통업에서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특히 브리질 현지외의 시차가 12시간 가량 생기는 관계로 주요 종목 결승전이 오전 5시 등 새벽시간대에 이뤄지거나 오전에 진행한다는 점은 더욱 올림픽 특수 기대치를 낮추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는 오는 5일 오전 8시에 남자축구 한국대 피지 조별예선이 치러진다. 구기 종목에서는 특성상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대부분의 직장인이 출근하는 시간에 경기가 잡혀있다는 이유로 유통업계에서는 올림픽 특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다수 내놓고 있다.

7일에는 사격 종목에서 진중오선수와 이대명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10m 공기권총 결승이 새벽 3시30분

에 개최될 예정이며 신아람·최인정·강영미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예복 개인 결승은 오전 5시45분, 박태환 선수가 출전하는 수영 자유형 400m 결승은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8일부터 10일까지 결승전이 예상되는 경기를 살펴봐도 대부분 오전 5시를 전후해서 열린 예정이다. 8일에는 안바울 선수가 출전하는 유도 66kg 결승이 오전 4시40분께 개최될 예정이며 9일에는 김지연·서지연·황선아 선수가 출전하는 펜싱 여자 사브르 결승이 오전 5시 45분께 열린다.

이후에 일정도 대부분 오전시간대에 잡혀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 업무나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치않는 시청자의 경우 전날 일찍 잠에 들었다가 새벽시간에 열리는 준결승전, 결승전 경기를 챙겨봐 되는 일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올림픽 기간

에 특집 방송을 편성해놓은 홈쇼핑 업체와 편의점 업체는 이번 올림픽 기간동안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조섞인 전망과 금메달 소식이 들려올 경우 매출이 오를 수도 있다는 희망적인 전망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홈쇼핑 업체 관계자는 “시청률 면에서 소폭 영향이 있을 것 같지만 시차가 많이 벌어져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며 “통상적으로 국가적 인 스포츠 행사가 열릴 경우 퇴근이후로 자기 전까지 스포츠 하이라이트 많이 보니까 그 시간대에 매출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경기 시간대가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매출 상승과 관련된 큰 기대는 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시스

이스타항공 여름성수기 증편운항

이스타항공이 여름 성수기 기간을 맞아 증편 운항을 실시한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왕복기준으로 국내선(김포-제주) 일 34편, 오사카-노선 일 4편 운항하고 있다.

휴가철인 8월 말까지 약 한 달 간기 노선인 국내선(김포-제주) 노선에 총 54편, 국제선(인천-오사카) 노선에 총 44편을 추가 증편해 운항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www.estarjet.com)와 모바일 앱(앱)에서 확인 및 이용 가능하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여름 성수기 기간을 맞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시간대로 편의를 제공하고자 증편 운항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7월 31일부터 8월 25일까지 김포-양양 노선 운항을 통해 휴가철을 맞아 강원도를 방문하는 국내 관광객 및 중국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주말 이마트서 SSG페이

모바일 결제시 5% 할인

모바일 간편결제 SSG페이가 매주 주말 전국 이마트와 이마트 트레이더스 매장에서 SSG페이 결제 시 전품목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SG페이는 8월 첫 주말 6일 토요일부터 12월의 마지막 주말 12월31일 토요일까지 매주 주말 정기적으로 5%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8월의 경우 주말은 물론 광복절을 포함해 총 9일 동안 할인을 진행한다.

이번 할인 행사는 SSG페이에 등록된 신용, 체크카드사의 기존 혜택과 쿠폰 등의 중복 할인이 가능해 고객들은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전단 상품의 경우 SSG페이에 등록된 이마트 카드를 사용하면, 이마트 카드가 제공하는 기존 5% 할인에 SSG페이가 제공하는 5% 할인을 더해 최대 1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장을 볼 수 있다.

SSG페이의 이번 혜택은 SSG페이로 5만 원 이상 결제 시 최대 2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전국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매주 1인 1회에 한해 제공된다. 또한, 주류, 담배, 종량제 봉투, 이마트 쇼핑백, 임대 매장 및 온라인몰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제외된다.

한편, 이마트에서 SSG페이를 사용하면 결제와 동시에 포인트 적립과 영수증 발급까지 한번에 받을 수 있어 결제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SSG페이의 쿠폰 자동 적용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마트 앱에서 다운받은 쿠폰을 결제와 동시에 적용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쿠폰을 제시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다. /뉴시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

